

## 세계 1위 꺾은 통쾌한 반란... 한국축구 희망을 쏘다



기적을 만든 투혼 28일(한국시간) 러시아 카잔 아레나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3차전 한국과 독일의 경기. 김영권의 슛이 골로 인정되자 손흥민, 김영권, 장현수 등 선수들이 신태용 감독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F조 최종전 독일에 2-0 승리 김영권·손흥민 연속골, 조현우 선방으로 '카잔의 기적'

1%의 가능성과 싸운 한국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16강 탈락에도 새로운 희망을 남겼다. <관련기사 2·3·20면>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7일 러시아 카잔의 카잔 아레나에서 열린 독일과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F조 최종전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나온 김영권과 손흥민의 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한국은 아쉽게 멕시코에 16강 자리를 내

줬지만 월드컵에서 독일을 꺾은 첫 아시아 팀이 됐다. '전 대회 우승팀 징크스'에 갇힌 독일은 이번의 희생양이 되면서 80년 만에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1%의 가능성을 뚫은 이번의 무대였다. 이날 경기 전까지 한국의 승리를 점치는 이는 거의 없었다.  
한국은 사활을 걸었던 스웨덴과의 첫 경기에서 '유효 슈팅 0'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며 0-1로 패했다. 멕시코전에

서 두 경기 연속 페널티킥 실점을 한 한국은 뒤늦게 터진 손흥민의 원거리골에도 1-2로 졌다.  
2패를 안은 한국의 조별리그 최종전 상대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 '디펜딩 챔피언'이자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 자리를 지켜온 독일.  
해외 배팅 업체는 "한국의 2-0 승리보다 독일의 7-0 승리가 더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의 16강 가능성을 1%로 책정했다. 신태용 감독도 "1%의 가능성이라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다"고 언급할 정도로 체급이 맞지 않은 일방적인 싸움 같았다.  
그러나 한국과 독일의 승부가 끝난 뒤 전 세계 축구팬들은 '이번의 무대'에 흥분했다.  
한국은 볼 점유율에서 3대 7로 한참 뒤졌지만 독일의 파상공세를 막으며 약속된 90분을 0-0으로 마무리했다. 그리고 주어진 6분의 추가시간에 한국은 마지막 투혼을 불사했다.  
경기 내내 육탄 방어로 '전차군단'을 저지했던 김영권이 후반 48분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수비수 맞고 흘러나온 공을 원반 슈팅

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세로모니를 할 겨를도 없이 선심의 기발이 올라갔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한국의 골이 인정됐다.  
마음 급해진 독일은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까지 한국 진영으로 올리며 최후의 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나 이내 노이어는 텅 빈 골대를 향해 질주하는 손흥민을 망연자실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후반 51분 노이어에게 공을 뺏은 주세종이 길게 공을 넘겼고, 어느 순간보다 간절하고 빠르게 달려 손흥민이 골대 앞에서 공을 밀어 넣으면서 독일의 16강 탈락을 세계에 알렸다.  
'카잔 기적'의 대미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 세계적인 스타로 떠오른 골키퍼 조현우가 장식했다. 여러 차례 독일 선수들의 가슴을 치게 했던 조현우는 후반 추가 시간 공세까지 막아내면서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냈다.  
1%의 확률 뒤에는 118km라는 필사적인 몸부림이 있었다. 한국은 점유율에서 한참 밀렸지만 독일보다 3km 많은 118km를 달리면서 기적 같은 승리를 만들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민선 7기 광주시·전남도정 화두는? 市, 일자리·혁신...道, 균형발전·인구

광주전남연구원 방향 제시 (15.5%), 연계·협력(11.9%), 재생 (10.7%) 그리고 전남은 균형발전 (21.4%), 인구감소 대응(19.0%), 일자리(14.3%), 포용적 성장(10.7%) 등으로 분석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민선 7기 시·도정 의 방향과 과제'를 특집 주제로 한 '광주 전남연구'에서 ▲지역 전략 및 성장산업 활성화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용 여건 개선 및 고용의 질 제고 ▲지역인력 양성 및 직업훈련 강화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여건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적었다.  
광주시의 중점 육성산업부문은 자동차 부품산업(28.6%), ICT산업(23.8%), 광융합산업(20.2%),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산업(38.8%), 관광산업(24.7%), 차세대 미래소재산업(12.9%) 등이라고 전문가들은 제안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역 인구 순유출, 좋은 일자리 부족,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노령화, 기후 변화, 4차 산업혁명 등의 악조건과 기회 속에 민선 7기 광주시와 전남도가 최적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또 이날 송경동 시인 등 5명이 통신비밀보호법 2조와 13조가 통신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 조항이 곧바로 효력을 잃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법 조항 효력을 일정 기간 잠정 인정하는 위헌 결정 방식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일보**  
과로사회 탈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 ▶14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기초연금 월 25만원으로 인상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www.그린장례식장.com

경황없다고 아무데서나 장례를 치를 수 있나요? **꼭** 마이카시대에 맞게 꼼꼼한 발품으로 **✓** 비교해 주세요. **비교할수록, 품격은 올라가고 장례비는 절감됩니다. 품격은 최고, 가격은 최저** 그린장례식장의 자랑입니다.

**400년 수령 소나무 향기 그윽한 곳, 보내는 이의 효심과 그리움으로 다시찾는 장례문화의 전당, 그린장례식장**

주요 품목	그린장례식장	A장례식장	B장례식장	C장례식장
밥 60인분	50,000	72,000	70,000	60,000
된장국 60인분	80,000	100,000	95,000	80,000
홍어사시미 4kg	130,000	150,000	150,000	140,000
생삼겹살(국산)5kg	190,000	260,000	240,000	220,000
맥 주 500ml	1,250	2,000	1,800	1,300
소 주 360ml	1,150	1,800	1,500	1,200

\* 전 객실 호텔식 기본용품 비치 및 전자저울 완비

**그린장례문화원**  
24시간 대기 **250-4455**  
광주광역시 동문대로 255(문흥동 876-17)  
전속모델 신 구